

완도 전복 등 전국 식재료 상차림...광주 시 사업 긍정 반응

윤대통령, 기자들과 용산에서 김치찌개·고기 만찬 "언론과 직접 소통 확대하겠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4일 대통령실 출입 기자들을 용산 대통령실 잔디마당으로 초청해 직접 김치찌개를 끓이고 고기를 구워 만찬을 진행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광주지역 일부 언론의 안부를 챙겼고, 만찬에 동석한 대통령실 핵심 인사들은 이날 강기정 광주시장이 직접 건의한 지역 현안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대통령의 저녁 초대'라는 제목으로 열린 만찬에서 고기를 직접 굽고 '윤석열표 데시피'대로 조리된 김치찌개를 기자들에게 나눠줬다.

당선인 시절인 2022년 3월 '취임 후 김치찌개를 끓여주겠다'고 기자들에게 했던 약속이 약 2년 2개월 만에 성사된 것이다. 이날 만찬 행사에는 출입 기자 200여명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과 정진석 비서실장, 성태운 정책실장, 장호진 국가안보실장, 홍철호 정부수석, 이도은 홍보수석, 김주현 민정수석, 전광삼 시민사회수석, 박춘섭 경제수석, 장상운 사회수석, 박상욱 과학기술수석 등 주요 참모진이 앞치마를 입고 직접 한우와 돼지고기 등을 솥불에 구워 기자들에게 배식했다.

메뉴로는 안동 한우와 완도 전복, 장흥 버섯, 무안 양파, 강원도 감자, 제주 오겹살, 이천·당진 쌀밥, 남도 배추김치, 여수 돌산 갯김치, 문정 오미자 화채, 경남 망개떡, 성주 참외, 고창 수박, 양구 멜론 등 전국 각지에서 공수된 국산 먹거리들이 나왔다. 술은 제공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이날 인사말에서 "취임하면서부터 후보 시절 예능 프로그램 '집사부일체'에 나온 김치찌개와 계란말이를 대접하겠다고 약속했는데 2년

이 지나도록 못 했다"며 "오늘 김치찌개 양이 많아 직접 만들진 못했지만 제 레시피를 운영관에게 적어줘서 그대로 만들었고 직접 배식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만찬이 끝날 무렵에는 각 테이블을 돌며 참석자 전원과 인사했다. 여러 기자들이 '이날과 같은 자리를 자주 마련하는 등 언론과 직접 소통을 확대해 달라'고 하자 윤 대통령은 "또 만들겠다"고 답했다.

또 테이블을 돌던 윤 대통령은 광주지역 기자들에게 광주·전남지역의 동향과 안부를 묻는 등 남다른 관심도 보였다. 각 테이블에 동석해 식사를 함께 하던 핵심 참모진도 이날 강기정 광주시장이 직접 대통령실을 찾아 정진석 비서실장 등에게 건의한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인공지능 실증 벨리 조성(AI 2단계) 사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반도체 특화단지 조성 기반 마련을 위한 AI 반도체 통합검증센터 구축 등의 사업 지원 여부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지역 균형발전 우선", "좋은 소식이 있을 것" 등의 긍정적인 답변을 내놓았다.

이날 참석한 기자들도 자연스러운 분위기에서 윤 대통령과 대화를 이어갔다.

임신 소식을 알린 한 기자가 '실효성 있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지적하자 식사 중이던 윤 대통령은 "정신이 번쩍 나네"라고 했다.

또 제민일보 김하나 기자는 "현재 대통령실에 40여곳의 지역 언론사가 출입하고 있다"며 "대통령에게는 40여개의 지방과의 소통 창구가 있다는 뜻이니 지역과의 소통을 더욱 늘려달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이렇게 분위기가 좋는데 미리 자주 할 것을, 미안하게 생각한다. 앞으로 자주하겠다"며 "글로벌 스탠다드 중추 국가를 지향하는 것에 걸맞게 정부가 지원하는 언론인 해외 연수 프로그램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연금개혁 방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 국민연금 개혁 방안 놓고 팽팽한 줄다리기

민주 이재명 대표 "대타협 하자" 국민의힘 "다음 국회서 논의"

21대 국회가 26일 임기 만료를 사흘 앞둔 가운데 여야가 국민연금 개혁 방안을 두고 팽팽한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이번 국회 임기 내에 '모수개혁'에 초점을 맞춰 1차 연금 개혁을 매듭짓자며 연일 가속페달을 밟자, 대통령실과 여당은 22대 국회에서 '구조개혁'을 포함한 패키지 대타협을 하자며 속도 조절에 나섰다.

이 대표는 지난 23일 연금 개혁 문제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과의 회담을 제안한 데 이어 전날에는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여권을 거듭 압박했다.

모수개혁의 한 축인 소득대체율과 관련해 국회 연금개혁특위에선 국민의힘 43%, 민주당 45%로 입장을 좁히지 못했는데, 이 대표는 여당 내에서 절충안으로 거론됐던 소득대체율 44% 안(案)을 받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모수개혁 난제였던 보험료율의 경우 국회 특위 차원에서 9%에서 13%로 올리기로 여야가 이미 합의했던 만큼 소득대체율 이견만 해소되면 21대 국회 임기 내에 우선 모수개혁은 해낼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대표는 전날 회견에서 "누군가는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아야 한다"며 "한 걸음을 못 간다고

주저앉기보다 반걸음이라도 나아가는 것이 낫지 않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22대 국회에서 기초연금·국민연금 관계 설정 등 구조개혁까지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소득대체율 44% 안은 구조개혁을 전제조건으로 한 것이라며 오는 30일 개원하는 22대 국회에서 여야정 협의체와 국회 특위를 구성해 속도감있게 논의하자고 역제안했다.

국회 연금개혁특위 여당 간사인 유경준 의원은 "국회 특위에서 민주당은 구조개혁에 대해 일체 연금을 안 하다가 인제 와서 22대에 구조개혁을 하자고 한다"며 "소득대체율 44%에 구조개혁을 패키지로 22대 국회의 올해 정기국회에서 마무리 하자"고 밝혔다.

유승민 전 의원 역시 "어렵부터 바로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을 동시에 논의해 올해 안에 처리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면서 "윤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이 포함된 개혁안을 내놓고 이 대표의 알뜰한 술수에 적극 대처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대통령실도 여당에 힘을 실었다. 고위 관계자는 전날 언론에 "국가 70년 대계를 쫓기듯이 타결 짓지 말고 좀 더 완벽한 사회적 대타협을 이루기 위해 22대 국회에서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연금 개혁 논의를 이어가자"고 밝혔다.

연금개혁을 둘러싼 여야의 신경전은 정책 이슈

독실, 정국 주도권과도 맞물리며 더욱 가열되는 모습이다.

민주당은 여당 안을 대승적으로 수용하고 민생 현안 해결에 주력하는 정당이라는 이미지를 부각하는 효과를 노리는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는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 즉 민생이고 연금개혁은 이 시대 가장 큰 민생 현안"이라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구조개혁이 빠진 연금개혁안을 줄속 처리해서는 안 된다면서 이 대표의 연금개혁 드라이브에 전략적 목적이 있다고 주장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최근 원내대책회의에서 "제상병특검법을 (28일 본회의에서) 일반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연금 개혁까지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나쁜 정치이자 폄수정치"라고 했다.

이에 민주당 이 대표는 전날 회견에서 "연금 개혁안을 특검법과 묶는 여당의 몰타"라고 반박하며 연금개혁안 처리를 위한 별도 본회의 소집을 김진표 국회의장에게 건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이날 오전 집무실에서 연금개혁과 관련한 기자간담회를 열고 "21대 국회에서 모수 개혁을 하고 22대 국회에서 구조개혁을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김 의장은 이날 "노동·교육·연금의 3대 개혁 중 가장 난제라고 평가받는 연금 개혁은 국민 공론화 과정을 거쳐 모수 개혁에 대해서는 여야 이견이 많이 좁혀진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연금개혁을 둘러싼 여야의 신경전은 정책 이슈

갤럽,尹 직무 수행 긍정 24%·부정 67%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20%대 중반에 한 달 이상 머물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6일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 21~23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한 결과에서 윤 대통령의 직무 수행 긍정 평가는 24%였다.

직전 조사인 5월 둘째 주(7~9일)의 24%와 동일하다. 긍정 평가는 총선 후 처음 진행한 4월 셋째 주(16~18일) 조사 당시 최저치인 23%를 기록한 뒤 이날까지 이뤄진 세 차례 조사에서 연속으로 24%를 기록 중이다.

부정 평가는 67%로, 직전 조사와 동일했다.

긍정 평가 이유로는 '외교(11%)', '의대 정원 확대'(11%), '전반적으로 잘한다'(6%), '주관/소신'(4%), '열심히 한다/최선을 다한다'(4%), '경제/민생'(4%) 등이 꼽혔다.

부정 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물가'(14%), '소통 미흡'(10%), '독단적/일방적'(8%), '거부권 행사'(7%), '외교'(5%), '김건희 여사 문제'(5%), '의대 정원 확대'(4%) 등이 거론됐다.

국민의힘 정당 지지도는 직전 조사보다 5%포인트(p) 떨어진 29%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직전 조사보다 1%p 오른 31%, 조국혁신당은 동일한 11%, 개혁신당은 1%p 하락한 4%로 나타났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전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한 조사에서는 '지급해야 한다'가 43%, '지급하면 안 된다'가 51%로 나타났다. 6%는 의견을 유보했다.

이번 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11.9%였다. 자세한 여론조사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연합뉴스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규칙 제 240320-중-166683호] [광고]

무릎 통증이 심할때는

첨단우리병원

무릎 관절

인공관절 수술
관절경 수술
- 전,후방 십자인대 수술
- 연골판 수술

튼튼한 척추 튼튼한 관절
첨단우리병원

대표전화. 970-6000
첨단과학기술원 / 호수공원 앞

BYUN.G.U

SALE 5.22 ~ 6.8

70%~50%

변지유 창립 45주년 맞이 감사세일

이월 상품 70~50% 세일 | 신상품 30% (망블라우스 제외)

많은 관심 참여 부탁드립니다. ☎ 062-222-7205 / 010-9287-7205